

碩士學位請求論文

志賀直哉의 『暗夜行路』 研究

— 自我成長과 그 契機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姜 泰 國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 語 教 育 專 攻

高 仁 惠

1998年 2月

# 志賀直哉의 『暗夜行路』 研究

— 自我成長과 그 契機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姜 泰 國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12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提出者 高 仁 惠



高仁惠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7年 12月 日

審査委員 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국문초록>

志賀直哉의 「暗夜行路」研究  
- 自我成長과 그 契機를 中心으로 -

高 仁 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姜泰國

志賀直哉는 근대 일본의 작가 중에서도 전 생애에 걸쳐 많은 작품을 남긴 多産 작가에 속한다. 그는 작품수만 120여편에 달하고, 그 외의 것을 포함하면 200편에 달하는 작품을 펴냈다.

이러한 志賀直哉의 작품 성향을 한마디로 일축하면 “私小説性”이라고 할 수 있다. 사소설이라는 것은 작가가 자기 주변의 이야기를 문학화한 것으로서, 사소설에는 작가의 인생관 및 경험과 연륜 등이 드러난다.

이런 성향을 가진 志賀直哉의 작품 중에서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것이 「暗夜行路」이다. 전 작품에 걸쳐 유일한 장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暗夜行路」안에는 그의 인생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志賀直哉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과제는 아버지와의 대립이었다. 이것으로 인해 直哉는 젊은 시절에 방황과 고뇌를 안고 살아가야 했고, 이는 「暗夜行路」의 주인공 時任謙作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이 된다.

어린 시절 조부모에게 길러져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直哉는 조부모, 특히 조부의 사랑과 가치관을 물려 받게 되고, 이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며, 급기야는 자신이 조부의 아들이 아닌가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 「暗夜行路」의 주인공 謙作은 이런 直哉의 심경이 그대로 작품 내에 나타난 인물이다.

어린 시절 조부의 집으로 옮겨가 살게 된 謙作은 주위 사람들의 알 수 없는 냉대 속에 지내게 된다. 謙作은 성장해서 작가가 되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기 자신

을 철저히 무장하고, 세상의 냉대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다. 하지만 자라온 환경에 의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를 찾게 되고, 이런 경향은 모성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여성상을 추구하기에 이른다. 결과, お築와의 결혼발표를 계기로 그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어머니와 세상의 냉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여기서부터 그의 방황은 시작되고, 또한 자신을 찾는 여행 또한 시작이다. 그의 방황은 直子라는 자기 이상형의 모성상을 가진 여인을 만나면서 안정을 찾지만, 直子は 다시 그의 어머니와 같은 부정을 저지르고 謙作은 다시 절망으로 빠져든다.

어머니와 直子の 부정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음을 인정하지만 그는 용납할 수가 없어 생활에 적용해 나가지 못한다. 謙作은 자기 자신의 안정과 임시적인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연을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大山으로 향한다. 大山에서 등산을 하던 그는 낙오되어 혼자서 자연 속에 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는 자연과 자신, 그리고 우주가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맛본다. 속세에서의 일들은 이제 커다란 자연과 하나가 된 그에게는 부질없는 것이었다.

이런 자연과의 일체, 자기자신의 순화를 통해 謙作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한 용서받을 수 있는 자아를 찾는다. 直哉가 고뇌와 번민을 하며 방황하던 그 시절을 謙作은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자아를 순화시킨 謙作처럼 直哉도 결국은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순화된 자신을 찾는다.

이 「暗夜行路」의 전신인 「時任謙作」을 발표하지 못했던 것은 작가 자신이 순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아버지와 화해 이후, 「暗夜行路」를 발표한 것은 그의 인생의 최대 과제였던 “父子相剋”이 막을 내렸음을 뜻하는 것이다.

완성된 자기순화, 조화의 세계로 가는 것, 그것이 「暗夜行路」가 가지는 의미이다. 이렇듯 志賀直哉의 대표적 작품인 「暗夜行路」는 그의 전 인생이 이 하나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론	-----	1
II. 본론		
1. 작가의 배경		
1) 시대·사회적 배경	-----	3
2) 가정적 배경	-----	7
2. 暗夜行路의 개요 및 성립과정과 구성		
1) 개요	-----	14
2) 성립과정	-----	17
3. 謙作의 갈등		
1) 갈등의 원인과 전개	-----	19
2) 아내의 부정과 갈등의 심화	-----	25
4. 갈등의 극복		
- 自然과의 調和, 自我意識의 發展	-----	31
III. 결론	-----	41
참고문헌	-----	44
Summary	-----	46

# I. 서론

志賀直哉는 1883년에 태어나 81세로 세상을 뜨기까지, 60년 가까운 문학창작활동을 하면서 작품수만 약 120편, 隨想과 雜錄을 포함했을 때는 200여편이라는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 작품들 가운데서 志賀直哉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을 하나 선택한다면 『暗夜行路』일 것이다.

『暗夜行路』는 志賀直哉 문학을 대표하는 유일한 장편임과 동시에, 작가 자신이 일생에 걸쳐 추구해 온 자기완성의 결정체이다. 따라서, 『暗夜行路』에 대한 이해는 志賀直哉 문학 전반의 이해로 통하는 길이다.

志賀直哉는 생애 자기 및 자기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주위만을 응시하고 있던 작가이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온 것에 가치를 두고 진실한 자기형성의 과정이 그대로 문학의 길이었던 작가라는 것이다. 즉, 志賀直哉는 생애에 있어서 자기형성의 과정을 그대로 문학으로 표현했다. 志賀直哉의 생애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대립은 가장 큰 인생과제였다. 그 대립과 거기서 빚어지는 내면적 갈등, 그리고 절대적 자아긍정의 인생관은 주인공 時任謙作을 통하여 『暗夜行路』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주인공 謙作은 작가 자신의 분신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暗夜行路』는 私小説 경향을 띄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謙作의 정신적 고통과 방황은 젊었을 때 志賀直哉 자신의 모습 그대로이고, 謙作이 방황의 끝에 얻은 안정과 조화의 세계는 志賀直哉 자신의 일생을 거쳐 추구해왔던 自己純化, 自己完成의 세계인 것이다.

일본문학의 한 장르로서 私小説이라는 것은 작가가 자기의 실생활을 가지고

직접 문학화한 것이고, 일상의 소재에 의해서 작가의 인생관을 제시하고 개별적인 경험을 통해 보편적인 도리에 이르려고 하는 소설을 말한다. 「暗夜行路」를 완전한 私小說이라고 하지않고 私小說 경향을 띄고 있다고 하는 것은 허구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없는 私小說의 입장에서 보면 「暗夜行路」는 픽션이기 때문이다. 작가 자신이 祖父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허구적 망상을 끼워넣은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暗夜行路」의 주인공 謙作은 志賀直哉와 정신적 동일체이고, 작가 자신의 내부에 허구 발상의 필연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私小說 경향을 띄고 있다고 한 것이다. 다르게 해석하면, 私小說보다 한단계 발전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다.

장편인 「暗夜行路」와 다른 단편들을 모두 합쳐서 志賀直哉의 문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의 특출한 재능을 그가 속해있던 문단인 「白樺」의 이상주의적 측면보다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발휘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냉엄한 사실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확한 표현력으로 그의 문학세계와 문학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또 하나 志賀直哉 문학의 특성은 그의 탁월한 사실주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작품이 위에 언급한 私小說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本考에서는 志賀直哉 인생의 自己完成의 결정체인 「暗夜行路」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志賀直哉 자신의 분신인 주인공 謙作의 갈등하는 모습과 그 극복, 그리고 극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自我成長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II. 본 론

### 1. 작가의 배경

#### 1) 시대·사회적 배경

志賀直哉가 문학활동을 하던 시대는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성장하던 때이다. 그러나 너무나 급격히 성장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났다. 노동자와 재벌의 대립, 농촌과 도시의 대립, 그리고 인간의 자기소외 등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향락적, 퇴폐적인 생활감정으로 이어졌고,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 성격파탄적이고 무성격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풍조 속에서 새로운 도덕관을 확립하고 자기인식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움직임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것이 自然主義運動이다.

自然主義는 원래 19세기 말경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자연과학을 기초로 한 것이다.

大學を自然科學と同質、同等のものと見立てる大學運動であつた。いっきの虚偽を許さぬ客觀眞實の究明は、もとより自然科學が本領とするところで、大學もまたかような自然科學的事實の追求に終始徹底すべきものだというのが、いわゆるヨーロッパ自然主義のたてまえであつた。1)

---

1) 西田正好, 「日本美の系譜」, 創元社, 1979, p.277.



라고 西田氏가 말하고 있듯이, 서양의 自然主義는 본래 寫實主義의 하나의 정점으로서 프랑스의 졸라에 의해 이론화된 것을 시작으로, 유럽을 휩쓸었던 文藝思潮이다. 그 때 유럽에서는 이미 자본주의가 초래한 사회악이 눈에 띄고, 그 추함과 어두움에 눈을 돌릴 필요 없이, 근대적 과학정신으로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충실하게 관찰하고 묘사해 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같이 自然主義는 원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해악에 관한 비판으로 출발하고 있던 문학이지만, 아직 봉건적인 것이 뿌리깊게 남아있던 당시의 일본사회에서는 충분히 그 본질을 배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본의 自然主義는, 서양의 自然主義와는 다른 특수한 모양을 띠게 되고, 자기주변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즉, 자기주변의 현실을 체관하고, 거기에 자아의 존엄과 자유를 확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自然主義 문학은 결국 개인의 극히 좁은 환경으로 눈을 돌리는 데 머무르고 사회비판의 넓이와 깊이를 갖지 못한 채, 大正기 이후의 私小說에 뒤를 물려주었다. 즉, 自然主義가 실증과 합리의 문학적 방법으로 객관적 혹은 사회적으로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의 현실인식이 특히 자기의 주변으로 좁혀지고, 그 체험하는 일상생활의 범위에 제한된 결과, 私小說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결국 自然主義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속에 그려진 어둡고 불행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고 큰 실망을 맛보아야 했다. 그들은 새로운 인간의 발견과 확립을 생각하면서, 결국 낡고 추한 인간밖에 그려낼 수 없었던 것에 절망하고 기력을 잃어버린다. 이같은 自然主義의 무기력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일어난 것이 白樺派 사람들이었다.

白樺는 1910년(明治43년) 4월에 창간되었고, 15명으로 출발한 白樺派의 활동은 文學史上 反自然主義 文學運動의 하나로 대두한다. 志賀直哉의 문학을 다룰 때 이 「白樺派」의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白樺派」의 문학이념이 다음과 같기 때문일 것이다.

第一に、ただ誠實に、純粹に、自由に自我の生命を表現すること、第二に、個人主義を一步前進させて(自然主義に欠けていた人間性の反面を補った点で)自我を尊ぶこと、そして第三に、よりよく生きんとする強い意志をもつこと、以上三つ類型。2)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충실할 것, 자신의 직접적인 느낌을 따르는 것으로, 자기를 무한하게 확대하고, 개성을 끝까지 살리고, 결국 자기를 천재로 완성한다고 하는 白樺派의 태도는 새로운 현실을 세울 기력을 잃은 말기의 自然主義를 대신해서 성실하게 어울리는 밝음과 정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923년(大正12년) 관동대지진으로 白樺가 폐간되기까지 白樺派 문인들은 反自然主義 입장에서 높은 이상과 강한 자기 긍정을 가지고, 당시의 청소년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 白樺派 문인들 중에서 志賀直哉는, 그 문장의 간결함과 분명함에 의해서 「小説の神様」라고 추앙받고, 문장을 쓰는 표본으로서, 많은 작가에게 영향을 준 존재가 되었다. 中村光夫는 「志賀直哉論」의 冒頭に

大正期の作家のうち志賀直哉ほど、生きた影響を深く現代文學に与へてゐる人はいません。鷗外、漱石といへども、この点では到底彼に及ばないので

2) 久松潜一, 「日本文學史總說」, 至文堂, 1977, p642.

す。3)

라고 쓸 정도이다.

이런 志賀直哉에게 시대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대표적으로 内村鑑三와 武者小路實篤를 들 수가 있다. 종교가인 内村鑑三와의 만남은 直哉가 18세때이다. 7년정도의 관계로 이어진다. 그간 内村로부터 「바른 것을 동경하고, 不正虛偽를 증오한다」라는 것을 배우고, 直哉의 윤리적 골격이 형성된다. 内村에 의해,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류를 통해 청년기의 直哉의 사상과 자각의 대부분이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直哉는 기독교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内村鑑三의 문하를 떠난다. 그것은 성서의 윤리와 청춘의 성욕에 모순을 느끼고, 그 윤리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直哉는 内村가 가진 신망보다도, 内村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이끌렸고,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보다 종교 이전의 개인적 감정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直哉의 벗이었던 武者小路實篤와의 관계도 단지 인간으로서의 깊은 관계이다. 「武者小路實篤著作集」推薦에 다음과 같은 일절이 있다.

私は自分の過去で、心衰へ、生活へ空虚を感じるような場合、よく武者小路の詩や感想を読んで、慰められ勇氣づけられた。勿論それは書かれた内容からも来るが、何かそれ以上武者にそういう不思議な能力があつて、それから来るやうに感じられる事があつた。……これは武者獨特なもので、思想と

---

3) 中村光夫, 『志賀直哉論』, 日本圖書センター, 1992, p.5.

か藝術とかいふものを超えた何かのやうな氣がする。4)

이것은 志賀直哉에게 있어서 武者小路實篤의 존재가 정말 컸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상이라든가 예술이라는 것을 초월한 벗으로서의 존재이다. 이처럼 志賀直哉는 자기자신에게 충실하면서 자신을 크게 하는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直哉의 평범하지 않은 강렬한 자아를 지지하고 있다. 그의 자아는, 감정의 자연스러움이 상처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므로, 志賀直哉가 内村鑑三의 기독교에도 武者小路實篤의 인도주의에도 동조하지 않고 자기중심적 태도를 기킨 것도 당연하다. 그리고, 그는 항상 자기를 말하면서 거의 일관하게 그 사상을 말한 일 없이, 그는 자신의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될 수 있는 한 허식과 과장을 빼고 자신의 문학에 전개시킨 것이다. 그리고 志賀直哉의 소설에는 그의 개성이 절대자로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가정적 배경

志賀直哉는 1883년(明治16) 2월 20일 宮城縣 石巻에서 은행원인 아버지 直濰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東京에서 태어난 장남 直行은 志賀直哉가 태어나기 1년전, 2년 8개월만에 病死했다. 형의 죽음을 祖父母는 젊은 부부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志賀直哉를 양친의 품에서 데려와 자신이 직접 양육하여 어릴적부터 부모보다 오히려 祖父母의 깊은 애정속에서 자라게 되었

4) 志賀直哉全集第八卷, 「稻村雜談」, 岩波書店, 1979, p.49.

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교육적으로도 祖父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直哉는 祖父를 통하여 다소 아버지를 격하시키려는 듯한 우월감이 몸에 배이면서 성장한다. 祖父母의 교육이라는 건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수 있지만, 直哉의 경우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다.<sup>5)</sup>

변화무쌍한 일본사회에서 志賀直哉의 아버지 直溫은 자본주의의 궤도를 따라 착실히 사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어린 시절의 直哉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영위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양친에게서 받지 못한 애정으로 인해 어린 直哉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부모의 정을 갈구하는 精神的인 不均衡狀態를 간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1895년 8월 志賀直哉는 그의 생모가 임신 후 입덧으로 죽었기 때문에 계모를 맞이하게 된다. 이 사실은 당시 어린 소년인 直哉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을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때 志賀直哉의 나이는 13세, 계모 浩의 나이는 24세였다. 후에 이런 상황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작품이 「母の死と新しい母」(明治45년)이다. 直哉는 이 작품에서 생모를 잃은 슬픔과 새 어머니를 맞이하는 설레임을 13세 소년의 눈에 비친 그대로 진솔하게 그려나가고 있다.

1901년 渡良瀬川연안의 足尾銅山鑛毒事件<sup>6)</sup>으로 아버지와 크게 충돌하게 된다. 근대산업화를 서두르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공해문제는 근대산업이 일으킨 사회악의 전형으로 明治중기의 사회에 큰 여론을 일으킨 사건 중의 하

---

5) 강권순, 「志賀直哉」의 「暗夜行路」研究, 1983, 서울건대 대학원, p.4.

6) 1876년 2월 30日 志賀直道와 古河市兵衛가 足尾銅山을 舊相馬藩主의 許可를 얻어 西歐의 새 技術을 導入하여 稼動. 1883년부터 活氣를 띄어, 1886年 舊相馬藩가 經營에서 손을 떼고 古河市兵衛가 獨占 經營한다. 1883年, 1884年頃부터 銅山에서 流出되는 鑛毒으로 渡良瀬川下流에 公害가 나타났다. 政府는 近代 産業發展에 必要한 銅生産을 위하여 農民運動과 輿論을 탄압하여 1910年 渡良瀬川, 利根川河川修理面目으로 谷中村全村民強制退去시켜 問題를 解決함. (安岡章太郎, 「志賀直哉私論」, 講談社, 1983, p.116~185)

나였다. 銅山의 광독유출을 묵과할 수 없는 큰 사회문제로 생각한 志賀直哉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피해지 시찰을 계획했으나 비참한 상황을 아들에게 보여 줄 수 없다는 아버지의 강한 반대로 부자가 충돌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와 오랜 대립이 시작된다. 또한 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銅山의 前 동업자였던 祖父가 오해를 받아 75일간 구류를 당하는 사건을 겪는다. 이것을 계기로 直哉는 행동과 사상을 일치시키려고 했으며, 사회문제보다는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에 초점을 둔다. 이것은 志賀直哉의 초기 작품에서 볼 수 있는 自我主張主義의 주류를 이루는 원인이 된다. 이것에 대해 下澤勝井氏は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このように變質していく過程を象徴的に示してくれる事件を私は明治三十四足尾銅山鑛毒事件をめぐる父との衝突にみる。志賀直哉が敬愛していた祖父は銅山の經營者古河と深いかかわり合いをもっていたがそうした事實の中で度良瀬の被害民の聲の方に志賀が自分をおき通すことは、彼にとってはそのまま與えられている生活な根底からくつがえすことを意味していた。志賀の眞情はこうした困難を前に坐礁し混亂する。その後、志賀はそうした自部を守衛するために自己内面の眞實にだけは忠實に従おうとする。7)

1907년 直哉는 자기집 식모인 千代와 애정사건을 벌여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그의 주관적인 진실이 일시적인 흥분으로 변모되어 자기내심의 혼란함을 가장 가까운 방해자였던 아버지에 대한 항쟁으로 나타내 아버지와 불화만 더욱 깊어갔다. 이러한 경위는 중편소설 「大津順吉」의 후반에 잘 나타나 있다.

7) 下澤勝井, 「志賀直哉における生活と文學」, 「志賀直哉Ⅱ」所收, 有精堂, 1978, p.175

東京帝國大 영문과에 진학한 直哉는 「或る朝」「網走まで」「荒絹」 등의 작품을 집필하고 영문과에서 국문과로 옮기지만 등교하지 않고 회람잡지 「望野」를 간행한다. 이어 直哉는 1909년 학습원 선·후배들과 함께 만든 회람잡지 「望野」를 비롯하여, 「麥」「桃園」 등을 합병하여 「白樺」를 창간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작가를 지망하며 대학을 중퇴한 自我意識이 아주 강한 아들과, 아집이 강한 아버지와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어 급기야 直哉는 단신으로 집을 나와 「尾道」 생활을 시작한다.

집을 나옴으로써 아버지와의 불화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가, 直哉는 이런 정신적 고통 속에서 그의 전반기 문학의 한 주류가 형성되어 간다. 이것은 자연과 조화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기 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自己貫徹 意識을 가지려는 것으로, 그의 초기작품에서 아버지와의不和라는 하나의 테마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절정에 선 대표적인 작품이 1913년 9월에 발표한 「汜の犯罪」이다. 그의 작품은 反調和的이며, 自我至上主義의 특색이 최고조에 달한 「汜の犯罪」까지의 활동기를 전반기로, 「城の崎にて」를 계기로 自然과의 調和의 경향을 띠며, 조화롭고 안정된 시기였던 그 이후의 활동기를 후반기로 나눈다.

전반기와 후반기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데, 전반기의 문학작품의 대부분은 인간의 여러가지 대립관계가 그 주제가 되어 있다. 즉, 자신과 아버지와의 대립, 사회와의 대립, 남녀와의 대립 등으로 인해, 그의 작품의 주제도 자기자신과의 대결이라는 형태로 전개된다.<sup>8)</sup> 원래 천성이 강하고 自意識이 높은 直哉이기 때문에, 작품 또한 자신의 일로, 작가로서의 사명감과 의욕·정열이 강한 데다가, 자신의 창작활동을 이해 못하는 아버지 및 가족에 대한 관계가 白樺

---

8) 최광석, 「志賀直哉文學의 考察 - 對立과 調和精神을 中心으로」, 1990, 계명대학교 대학원, p.8.

의 동료문인들과의 관계등이 直哉의 自我成長이라는 정신과정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志賀直哉의 「續創作餘談」에는 「尾道」 자취 생활을 하던 도중, 讚岐路로 旅行하고 屋島에서 一泊했을 때,

尾の道でこの長篇を書きつつあった頃、讚岐へ旅行をして屋島に泊った晩、  
寝つかれば、色色と考へている内に、若しかしたら自分は父の子ではなく、  
祖父の子ではないかしらと想像した。9)

라는 부분이 있다. 祖父의 자식이라는 상상은, 항상 환기할 수 있는 심리적  
또, 일상 가정생활속에 있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 상상을 뒤에서 지지하  
고 있던 것으로는 어릴 적부터 그 품에서 키워지고, 존경하는 마음과 사모하  
는 정으로 祖父 直道에 관한 작가 자신이 祖父의 아들이었으면 하는 희구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直哉가 13세때 33세로 사망한 모친을 보고 祖父가

本統に楽しいと云う事も知らさず、死なしたのは可哀想なことをした。10)

고 말하여 울던 것과 연관지어 주인공 謙作의 어두운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  
다고 한다.11)

그래서, 直哉는 아버지와의 不和를 주제로 한 私小説 「時任謙作」를 쓰기

9) 志賀直哉, 「續創作餘談」, 「志賀直哉集」, 筑摩書房, 1974, p.394.

10) 上掲書, 志賀直哉, p.394.

11) 강권순, 「志賀直哉」의 「暗夜行路」研究, 1983, 서울전대 대학원, p.8.



시작했다.

이때, 夏目漱石에게서 朝日新聞에 연재소설의 청탁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집필을 거절하고 만다. 이 이유에 대해서 志賀直哉는

私情を超越する事の困難が、若しかしたら書けなかった原因であったかも知れない。12)

라고 쓰고 있다.

비록 朝日新聞의 지면제공과 함께, 夏目漱石라는 대작가로부터의 부탁은, 젊은 작가 直哉에게 있어서는 소설가로서 大成할 수 있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음에 틀림없었으나, 아버지와 不和・對立을 주제로 한 「時任謙作」를 신문에 실는다는 건 당시 실업가로서 몇 개 회사의 임원을 겸하고 있던 아버지에게 대해서 신문(世間)의 힘을 빌어서 공세하는 결과가 되고, 문학으로서 쓰여진 것이 마치 신문기사처럼 읽혀지고, 독자들의 소리가 높아졌을 때, 작가는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작품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志賀直哉는 자신의 소설 때문에,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받을 피해의 책임, 즉 문학 외의 책임과 독자의 반응에 의해서 자신의 문학의 자율성에 침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느끼고 결국 漱石의 의뢰를 거절한 것이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志賀直哉의 전반기 문학의 최대 테마는 아버지와 對立의 대립이다. 鑛毒事件과 식모와의 연애사건으로 인해 심한 충동을 하게 되어 그의 작품 속에서는 이러한 아버지와 不和로 인한 反調和的이며, 反協力的

---

12) 上掲書, 志賀直哉, p.393.

이고 自己中心的, 反抗的인 내용이 나타난다. 이러한 작품 경향은 1917년 「和解」의 집필로 자연히 아버지와의 불화가 해소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다. 直哉는 아버지와의 화해 이후 편안하고 조용한 창작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今野宏는 直哉의 가장 큰 인생과제였던 아버지와의 대립과 그 화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つまりこの父と子は、それぞれの異なった精神的次元にあって本質的に對立しているのではなく、同じ「家」「家族制度」の中での家長的立場において相剋しているのである。それは父子の同次元における感情的對立であるから、その和解への過程も相互の人情と感情の溶解という形でなされる。13)

위의 引用文에서 直哉父子의 對立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본질적인 대립이 아니고, 단지 그가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에 반발한 것에서 기인한 대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直哉父子의 화해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다만 주관적인 감정해소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對立的이고 反抗的이었던 直哉의 調和的이고 安定的이고 理想主義的 精神에 의 경향은 결코 예상치 못한 획기적인 변화만은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버지와의 화해만으로 이루어진 것만도 아니다. 몇번이나 거듭되는 유랑, 그리고 거처를 전전했다. 게다가 大正2년 죽음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던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독립하여 가장의 위치에 서게 된 直哉에게 닥친 장녀 慧子와 장남 直康의 죽음, 이러한 여러가지 불운이 거듭되면서 모순과 갈등에서 번민하면

13) 今野宏, 「志賀直哉の調和的精神」,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所收, 有精堂, 1970, p.100.

서 直哉는 서서히 안정과 조화로 관조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변화해 간다.

## 2. 暗夜行路의 개요 및 성립과정

### 1) 개요

暗夜行路의 주인공 時任謙作은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어릴 때 다른 형제와 떨어져 祖父의 집으로 옮겨져 키워진 사람이다. 謙作은 엄격한 사고방식과 결벽한 자아의 소유자로서, 好惡과 愛憎의 표현이 직선적인 점이 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謙作은 阪口와 龍岡라는 친구들에게 끌리어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방탕한 생활의 체험은 숨겨져 있던 謙作의 성욕을 자극하고, 마침내 어릴 적부터 같이 생활해 온 祖父의 첩인 「お榮」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다. 청춘의 연애방황과, 여성편력의 결과, 기분상으로는 거의 육친과 다를 바 없는 가장 가까운 여성인 「お榮」를 성욕의 대상으로서 생각하고, 그 성욕에 대한 처리를 결혼으로 추구할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お榮」에게 구혼으로 형 信行의 편지를 통하여 자기 출생의 어두운 비밀을 알게 되는 심각한 계기에 대면하게 된다.

時任謙作은 祖父와 어머니와의 사이에 태어난 「不義の子」였다. 謙作은 자기 자신을 상실했다. 그 정도로 이 출생의 비밀은 그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이다. 이런 자기상실과 허탈에서 謙作이 다시 일어섰을 때, 정리된 이성과 감정은 꽤 고차원적인 것임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먼저 어머니를 용서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감사히 여겼다. 곧 아버지는 祖父와 어머니의 과실이라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 文에 자신에게 좋게 처

리해 주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그는 그 나름의 체관을 가졌다. 보잘 것 없는 비밀은 자기에게 관계가 없는 것, 책임을 갖지 않는 것으로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氣分整理의 方法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현명한 길이었지만, 소극적인 체관에 지나지 않았다. 謙作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필요로 했다. 그것은 자신을 인간적으로 재생하는 유일한 길인 창작에 몰두하는 것이었다. 謙作은 「お榮」의 육체에 대한 유혹에서 도망쳐 소설을 쓰기로 맘을 굳히고 「尾道」로 가지만, 거기에서의 생활도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お榮」에게 집약되어 있던 謙作의 방탕은 모습을 바꾸어, 다시 나쁜 방향으로 향했다.

좀처럼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없었던 謙作은 直子라는 여성과 만나 비로소 가라앉고 정화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謙作과 直子와의 결혼은 순조로이 진행되고, 두 사람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맛보게 된다. 그러나 이런 행복으로 안정된 마음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기의 죽음과 直子の 과실이 그것이다. 謙作은 直子の 과실에 대해서 용서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다. 말로는 용서할 수 있었지만 감정은 그렇게 되지 않는 不調和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不調和의 마음 상태가 원인이 되어 謙作은 直子에 대해서 발작적 행동을 취하게 된다. 謙作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大山행을 결심한다. 謙作은 산의 정상행을 하던 도중, 체력이 받쳐주질 못해 하산했지만, 急性腸카타르로 높은 열이 나고 증태에 빠진다. 그리고, 直子が 전보를 받고 달려온다. 사경을 헤매는 謙作의 정화된 정신은 마음으로부터 直子を 구원해 주고 있었다.

이에 直子도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謙作을 이해하고,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가 된 조화의 세계를 얻은 것이다.

『暗夜行路』의 대체적인 개요를 살펴보았는데, 이 작품은 주인공이 어린시절을 거쳐 성장하는 과정, 갖가지의 경험들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의 성인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런 작품을 형성소설(Bildungsroman) 또는 성장소설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의 인격형성이 각종 교육의 소산이라고 보아 교육소설이라고도 한다. 주인공이 정신적인 위기를 거쳐 성숙에 이르고 자신의 신원을 깨닫고, 세계에서의 역할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위의 개요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暗夜行路』는, 맨 처음에 序詞가 있고, 前篇, 後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序詞에는, 주인공의 추억 속에 祖父, 母, 父, 兄, 妹, お榮 등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의 상호관계를 그리고 있다. 특히 『暗夜行路』의 배경이 되고 있는 비극적 운명의 원인에 깊은 관계가 있는 祖父, 父, 母에 대한 어린 謙作의 감정, 또 祖父와 孫子,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의 미묘한 관계가 謙作의 기분을 통해서 그려지고, 작품 전체에 대한 함축성있는 복선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前篇의 第一에서는 愛子와의 결혼문제 파기를 시작으로 お榮, 登喜子, お加代 등의 여성들, 阪口 등의 친구, 아버지 및 兄 信行 등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주인공 時任謙作의 어두운 청춘의 방황을 그리고, 第二에서는 謙作의 출생에서 얽힌 어두운 운명이 그려지고, 謙作의 방황이 시작된다.

後篇에 들어가면 前篇의 암울함이 맑게 개인 느낌으로, 第三에서는 謙作은 直子와 결혼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태어난 아기가 곧 죽어버리는 충격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謙作은 그것을 초월하고, 第四에서 直子の 과실이 그려지지만, 謙作은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大山으로 향하고, 조용함과 평

화를 발견한다는 구성으로, 時任謙作의 내면세계와 그 전개라는 것은 자연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측면으로서 그리고 있다.

## 2) 성립과정

『暗夜行路』의 前篇이 「改造」에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1921년(大正10년) 1월호부터이고, 도중 7월호에서 한번 쉬고, 8월호로 완결되었다. 『暗夜行路』의 서사는 「謙作の追憶」라고 이름 붙여져 1920년(大正9년) 1월 「新潮」에 발표되었고, 前篇의 마지막 장은 1919년(大正8년) 4월 「憐れな男」라는 제목으로 「松央公論」에 발표되었다.

後篇은 1922년(大正11년) 1월호부터 「改造」에 연재되었지만, 「時任謙作」라는 초고의 바탕이 있던 전편만큼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게재를 자주 쉬고, 계속 끊기다가 1937년(昭和12) 4월, 결국 완성되었다.

이렇게 긴 세월이 걸쳐서 쓰여진 『暗夜行路』의 연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前篇 1921년	1월 (序詞, 一~七)	2월 (八~十)
	3월 (十一~十四)	4월 (十五~十八前半)
	5월 (十八後半~二十)	6월 (二十一~二十二)
	8월 (二十三~二十六)	
後篇 1922년	1월 (一~五)	2월 (六~九)
	3월 (十~十二前半)	8월 (十二後半~十四)
	9월 (十五~十六)	10월 (十七~十八)

1923년	1월 (十九~二十)	
1926년	11월 (續篇一, 二)	12월 (三)
1927년	1월 (四, 五)	2월 (六)
	3월 (七前半)	9월 (七後半, 八)
	10월 (九, 十)	11월 (十改訂, 十一, 十二)
	12월 (十三前半)	
1928년	1월 (十三後半, 十四)	6월 (十五)
1937년	4월 (十六~二十) <sup>14)</sup>	

연보로 보듯이, 발표는 계속 끊어졌고, 마지막 부분은 쓸 수 없게 되어 10년 가까이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16년의 세월에 걸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설령 쓰지않고 있었다해도, 이 긴 세월동안 志賀直哉는 실생활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성장해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중간의 휴지기의 작가적 침묵으로 인해 그의 작품은 더욱 강력한 自己主張을 표출하였다. 자기 의지에 의한 내면의 지배를 향하여 외부로부터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었다. 작가이기 이전에 생활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여, 창작 또한 실생활의 일부로서, 直哉가 삶이 어려웠을 당시 그의 작품 또한 태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暗夜行路」를 완성시킨 소감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人に「暗夜行路」はどうするつもりかとよく訊かれ、其度いづれ書上げるつもりだとは答へてゐたが、余り永く抛つてあつた爲に、去去手がつけられ

14) 平野謙, 「暗夜行路發表年譜」, 大正文學研究會編「志賀直哉研究」所收, 河出書房, 再引用.

ず、仕舞ひには「暗夜行路」の事を人がいひ出すといやな氣がした程だったが、全集刊行を機會に到頭書上げて、私は漸くそれから解放された。しかも私にとってはたった一つの長篇なので、一層嬉しかった。15)

이것은 16여년의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謙作의 갈등

#### 1) 갈등의 원인과 전개

「暗夜行路」는 작품 전체를 통해 보면, 時任謙作 한 사람의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만큼, 작품 중에서의 주인공의 비중은 실로 크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 謙作의 성격과 분위기는 그대로 작품을 결정하고 있다. 「暗夜行路」前篇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謙作의 사카구치에 대한 불쾌한 감정은, 그의 직선적인 성격과 인생전반에 걸친 그의 태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이다.

주인공 謙作은 확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적극적인 성장을 갈망하는 삶에 대한 진취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일에 대한 윤리관과 존엄성을 인식하고 예술과 과학의 영구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앞서에서도 말했듯이 祖父 直道の 영향하에서 얻은 작가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주인공 謙作의 인생관에 투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존심이 강하고 근대적 지식인에 흔히 볼 수 있는 예민한 신경을 지닌 주

---

15) 前掲書第七卷, 「全集完了」 p.135.



인공 謙作은 항상 自我成長을 추구하며 內的自我가 강한 인물로서 등장한다. 이러한 주인공인 謙作의 內的成長의 契機는 두 번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첫번째는 주인공 謙作가 자신의 出生의 秘密을 아는 것이고, 두번째는 아내의 不貞을 아는 경우이다. 이 두 번의 自我成長의 契機라는 것은 그가 넘어야 할 갈등이고, 그 갈등을 극복했을 경우여야만 그는 自我成長을 하게 된다.

첫번째 계기는 곧 고찰하지만, 두번째 경우는 다음장에서 상세히 고찰해 보 고자 한다.

첫번째 계기를 밝혀본다. 時任謙作은 그의 아버지가 3년간 독일로 유학을 떠난 사이에, 어머니와 불품없고 천박한 祖父 사이에서 태어난 「不義の子」 였다.

물론 이 사실은 謙作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으며, 어떠한 상황 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작품 안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주인공 謙作은 지금까지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냉대와 - 쾌감의 이유를 터득함으로써 막연한 - 쾌감을 일소시킬 수 있었고, 자신의 어두운 운명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힘의 한계와 인간이 좌우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해 無力感和 人生無常을 느낀다.

어머니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祖父는 謙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다. 直哉는 謙作의 祖父에 대한 인물설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私は祖父を尊敬した。私は肉身といふ私情を除いても、自分の此世で出會った三四人の最も尊敬すべきの一人として祖父を尊敬してゐる。それ故、「暗夜行路」の主人公の祖父には私の祖父と思へきり類似點のない人間を書かねば氣が濟まなかつた。當時我孫子で自家に出入してゐた植木屋の親爺をモデルにした。昔は所謂好男子であつたらうといふやうな老人だつた。その爲

身を持ちくづし、今は息子に使はれてゐる。さういふ意氣地ない老人 - 私は  
この老人が嫌ひだった。- それを頭に置いて書いた。16)

이같은 현실의 祖父와 반대되는 인물설정은 작품 전개의 몇부분에서 그 효과를 내고 있다. 즉, 時任謙作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兄 信行의 편지로 알고, 그 祖父가 실제의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 文에도, 자신의 祖父(父)를 멸시하는 것으로, 父性에 대한 본능적으로 막연한 동경을 안을 여지가 없는, 철저한 자기중심적 성격의 소유자가 된다. 또, 어머니의 과실에 대해서도, 그 천박하고, 볼품없고, 장점이라고는 무엇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祖父에 대해서 연약한 입장의 어머니라는 단정,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어머니를 애처롭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진정으로 용서하게 된다.

즉, 「過失」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責任」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주어진 「宿命」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祖父를 거절할 수 없었던 약한 여자이며, 이 사건은 「不幸」이며, 추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sup>17)</sup> 어머니는 과실을 범했지만, 어머니 그 자체는 죄가 없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謙作가 어머니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래서 謙作은 자신을 낳은 어머니에 대해서만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었다고 믿는다.

「誰からも本統に愛されて居ると云う信念を持たない謙作は、僅な記憶をたどって、矢張り亡き母を慕って居た。其母も實は彼にをう優しい母ではなかったが、それでも彼は其愛情を疑う事は出来なかった。…中略…

16) 安岡章太郎, 「『暗夜行路』その背景」, 文藝讀本所收 河出書房新社, 1985, p.42.

17) 이채영, 「暗夜行路의 女性觀과 運命觀」, 1990, 계명대학교 대학원, p.32.

本統の愛情は何と云っても母より他では経験しなかった。」<sup>18)</sup>

謙作의 어머니는 자신의 부정으로 태어난 謙作가 마음 속으로는 가엾고 사랑스러웠겠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상냥한 어머니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謙作는 회미한 기억을 더듬어 어머니만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믿는 것이었다.

謙作의 실제적인 아버지인 祖父는 謙作의 나이 6세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쑥 謙作의 앞에 나타났고, 謙作는 왜 혼자만이 가야하는지도 모른채 祖父의 집으로 홀로 옮겨가 살게되었다. 하지만 祖父는 謙作에게 약간의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부정으로 태어난 「不義の子」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 부터 냉대를 받아왔던 謙作에게는 '愛情'이 필요했지만, 아버지 역시 그에게 노골적인 -만만을 나타내고 애정을 주지 않았다.

아버지와 謙作의 對立은 머리말에서 충분히 암시가 되어 있다. 그건 어린 謙作가 아버지와 씨름(相撲)을 하는 장면이다. 이때 謙作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려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힘껏 아버지에게 대항을 하나 아버지는 좀처럼 저주지를 않는다. 뿐만 아니라 흥분한 묘한 웃음을 띤 목소리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한다. 그러나 끝까지 謙作가 항복을 하지 않자 양손을 뒤로 묶어 버린다. 이런 謙作와 아버지의 묘한 감정의 대립은 謙作로 하여금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버렸다.

이런 냉대 속에서 謙作는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어머니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

18) 志賀直哉, 「暗夜行路」, 「志賀直哉集」, 筑摩書房, 1985, p.21.

謙作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감정 - 그의 출생 때문에 소외된 존재였던 謙作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었던 애정과, 「罪の子」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미신적인 두려움 - 을 가지고 있었다. 즉 謙作는 어머니를 사랑했으면서 그의 어머니의 '罪'를 공유하려는 의식을 가지려 했던 것이다. 謙作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을 포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母性' 또는 어머니의 사랑을 중시했다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 謙作가 방탕한 생활을 할 시기에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생각을 들어보면 될 것이다.

謙作는 「茶屋の女, 登喜子」나 「藝者, 千代子」등을 만나면서도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그들에게서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진다. 謙作는 그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그들을 관찰하고 그녀들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끌려 들어가면서도 경멸과 반발을 느꼈다. 그는 방탕하면서도 그녀들에게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찾았으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쓸쓸함뿐이었다. 그것은 謙作가 그토록 갈망했던 모성을 그녀들에게서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렇듯 그가 갈구하는 모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중시해야 할 사람은 祖父의 첩으로 등장하는 「お榮」다. 謙作에게 있어서 お榮의 존재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머리말의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お榮は普段少しも美しい女ではなかった。然し湯上りに濃い化粧などすると、私の眼にはそれが非常に美しく見えた。そう云う時、お榮は妙に浮き浮きとする事があった。祖父と酒を飲むと、其頃の流行歌を小聲で唄ったりした。そして、酔うと不意に私を膝へ抱き上げて、力のある太い腕で、ちっと抱き締りたまたりする事があった。私は苦しいままに、何かしら氣の遠くなるような快感を感じた。19)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お榮가 어린 謙作를 힘있는 굵은 팔로 꼭 끌어안는 부분이다. お榮가 어떠한 기분으로 謙作를 안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謙作가 웬지 모르개 기분이 아득해지는 듯한 쾌감을 느끼는 모습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무언가 커다랗고 풍요로운 존재에 폭싸여 몸을 맡기고 싶어하는 謙作의 가장 근원적인 회구를 볼 수 있는 것이다.<sup>20)</sup>

謙作는 이런 존재인 お榮에게 마침내 성욕까지 느끼게 된다. 이것은 志賀直哉가 「白樺」의 친구 武者小路實篤의 있는 그대로를 긍정하는 자연존중의 인간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성욕을 해방하여 이것을 사상화나 관념화하지 않고 순수한 육체적 욕망으로 표현했다.

이것에 대한 적절한 표현으로 中村光夫는 「…動物の生理にそれ自身に不潔なものはないやうに、青年の生態もそれ自體として醜い筈はない。」<sup>21)</sup>라고 했다.

志賀直哉는 자신의 일기에 謙作의 이런 육욕, 즉 성욕에 대해,

健康が欲しい。健康なからだは強い性欲を持つ事が出来るから、ミダラでない強い性欲を持ちたい。(明治四十四年一月二十六日)

라고 쓰고 있다. 여기에는 건강하고 원시적인 육체의 사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 내비쳐져 있다. 이런 건강함은 방탕한 장면의 바로 다음에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만큼 삽입되어 있는 청결한 장면과 서로 호응하고 있다.

19) 上掲書, 志賀直哉, p.5.

20) 이채영, “暗夜行路의 女性觀과 運命觀”, 1990, 계명대학교 대학원, p.23.

21) 前掲書, 中村光夫, p.65.

도 좋을만큼 삽입되어 있는 청결한 장면과 서로 호응하고 있다.

즉, 謙作의 お榮에 대한 성욕을 순수하게 청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의 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그려낸 것이다. 謙作은 お榮에게서 느끼는 감정 - 즉 성적 유혹을 탈피하고자 「尾道」에 가게 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고독으로 인해 한층 お榮에 대한 친근감이 깊어져 결혼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 이러한 결혼을 결심한 謙作은 너무나 非倫理的이며, 道德적인 추악함에 가득 차 있어, 이것은 謙作 한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祖父의 대에서부터 누적된 단계적인 성적퇴폐, 인간적 황폐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위가 兄의 편지에 의해 폭로된 것이다. 謙作은 이러한 운명에 대한 공포심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것보다 더 큰 비극적인 운명을 상상하게 되어, お榮와의 결혼이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운명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저지른 非倫理를 자신이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謙作은 스스로를 자제하려고 애쓴다.

이처럼 謙作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어머니의 부정으로 태어난 자신의 존재, 모성에 대한 강렬한 회구, お榮에 대한 생각과 성욕, 점점 더 방탕해져가는 자신의 생활,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는 끊임없는 대립 등등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갈등하고 방황을 하게 된다.

## 2) 아내의 부정과 갈등의 심화

앞장에서 밝힌 두번째 契機에 대해서 살펴 본다.

お榮에 대한 끊임없는 감정을 견디지 못한 謙作은 어지러운 생각들을 정리

자아의 혼동을 느낀 謙作은 東京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京都로 떠났다. 京都에서 謙作은 어느정도의 안정을 찾게 되고, 자신의 부인이 될 「直子」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이 直子を 보았을 때의 謙作의 느낌은 다음과 같다.

大柄な肥った、そして火をおこしている爲めかその豊かな頬が赤く色づいている。それも健康そうな快い感じて彼に映った。彼はその人にひきつけられた。普段何気なく美しい人を見る時とは、もっと深い何かでひきつけられ、彼の胸は波立った。<sup>22)</sup>

謙作과 直子の 만남은 이 작품의 새로운 전환점으로서 지금까지 주인공이 회구해 왔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강한 애착에서 순수한 남녀간의 사랑, 즉 완전한 이성간의 사랑으로 바뀐다.<sup>23)</sup>

謙作은 젊고 아름다운 直子에게 한눈에 반해 사랑을 느끼게 되어 「息苦しいやうな幸福感」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행복감은 お榮에게서는 발견하지 못한 신선함이어서, 謙作은 直子を 이상적인 여성으로 과장시켜 보았고, 결국 直子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謙作은 直子와의 결혼을 통해 지금까지의 어두운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나 모든 일은 자기자신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희망과 행복에 가득 차게 된다.

그러나 주인공 謙作은 첫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人生無常의 시련에 다시 빠지게 된다. 자아와 생명을 다루는 「運命의 神」과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자연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존재를 인식했다.<sup>24)</sup>

22) 前掲書, 志賀直哉, p.92.

23) 이채영, "暗夜行路의 女性觀과 運命觀", 1990, 계명대학교 대학원, p.26.

志賀直哉는 자신이 전차에 치이는 사고로 죽음에 직면했던 그 후에 쓴 「城の崎にて」에서 별과 도롱뇽의 죽음을 보고,

自分は偶然に死ななかった。自分はそれに對して感謝しなければ濟まぬやうな氣をした。然し實際喜びの感じは湧き上って來なかつた。生きて居る事と死んで了つてゐる事とそれは兩極でなかつた。それ程に差はないやうな氣がした。もうかなり聞かつた。視覺は遠い灯を感ずるだけだつた。25)

라고 말하듯이 志賀直哉는 죽음의 현실에 직면하여 염세적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生과 死는 存在의 두 가지 방법으로서, 삶을 사는 생명의 불안함을 알고 생명에 대한 가련함을 강하게 지각함과 동시에 生과 死의 동일성을 표현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直哉는 자신의 死生觀을 말하고 있다. 이는 그가 교통사고 체험 이전에는 불안한 두려움의 세계로 인식한 죽음을, 삶과 차이가 없는 평화의 세계로 인식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극적으로 살아난 체험은 작품 「或る男、其姉の死」에서도 잘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은 치명적인 부상이 교통사고가 원인이 아니고, 등산 도중에 뱀을 보고 놀라, 나무에서 떨어져서 입은 부상을 주제로 하여, 生과 死에 대한 그의 人生觀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城の崎にて」와 같은 맥락에서 죽음을 인식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生과 死에 대한 志賀直哉의 생각은 첫 아이가 죽었을 때의 謙作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

첫아이의 죽음으로 人生無常의 체험을 한 주인공 謙作는 마음의 상처를 치

24) 강권순, 「志賀直哉」의 「暗夜行路」研究, 1983, 서울건대 대학원, p.24.

25) 志賀直哉, 「城の崎にて」, 「志賀直哉集」, 筑摩書房, 1985, p.229



유할 생각으로 조선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10일간의 조선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謙作은 동물적인 직감으로 直子와 그녀의 사촌인 「要」와의 不貞을 알게 된다. 어머니의 不貞으로 고뇌하고 그 괴로움에서 겨우 빠져나왔던 謙作가 이번에는 아내 直子の 과실로 다시 고통의 미궁에 빠져들게 된다. 어머니의 不倫으로 인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쾌한 감정과 아내의 不貞에 대한 불쾌. 주인공 謙作은 「不快한 感情」을 인생에 있어서 윤리의 척도로 삼고 있다고 하겠다.

머리말 부분에서 나오는 祖父와 아버지에 대한 불쾌한 감정과 친구인 阪口에 대한 불쾌한 감정처럼 그의 불쾌한 감정은 거의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주인공 謙作가,

…何でも最初から好悪の感情で来る。…好悪がすぐさまこっちでは善悪も判断になる。それが事實大概當るのだ。<sup>26)</sup>



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 주인공 謙作의 감정 즉, 기분은 자신이 좌우할 수 없는 객관성을 지니고 자아 판단의 바탕이 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中村光夫가,

「氣分」といふ感情化された思想あるひは思想化された感情を、ひとつの倫理に設定して、これによって生活を規制することで、彼は「思想」の機能

---

26) 前掲書, 志賀直哉, p.160.

を一面においてその實生活の感性の範圍に限定すると同時に、他面その狭い  
枠のなかでは、「思想」としての特性を保存して彼の行動の - とくに家族へ  
の反抗に際しての - 無私性を保證する支柱の役割を果させるのです。27)

라고 하여 사상화된 감정으로 주인공 謙作가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실수하  
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實生活의 感性의 範圍에 限定되는 思想」  
이라고 하는 것은 謙作를 통해 나타나는 直哉의 사상이 윤리적인 감각에 기인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윤리적 감각에 反하는 사회와 인생  
의 어떤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감정이 예민하게 파고 들지만, 그러  
나 그것이 전체적인 것으로 발전하여 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不快한 氣分」에 의하여 直子の 입에서 不貞을 알게 된 謙作는 옛  
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현명하게 일을 처리했듯이 자신도 증오할 수 없는 대  
상인 直子를 용서해 주어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다. 즉,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 어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어머니의 罪를 ‘共有’하려고 했던 자아  
를 실천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한 입장에 놓인 謙作는 결국 바보  
스럽게 된 것은 자신뿐이라는 감정 즉, 자아와의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자신의 내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혼자 해결을 하기 위해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28)

하지만, 노력이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 謙作는 아내 直  
子の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편안한 마음으로 直子를 용서하고 싶었으나 용서라  
는 것은 결국 이성적인 것이지 결코,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의 머리는 아내의 過失을 용서하려 하지만, 마음깊은 곳에 숨어있는 발작적인

27) 前掲書, 中村光夫, p.41.

28) 강권순, “「志賀直哉」의 「暗夜行路」研究” 1983, 서울건대 대학원, p.30.

행동을 謙作은 억누를 수 없었다. 주관으로 好惡을 判斷하고, 善惡의 判斷이 好惡의 感情에서 오는 자신 고유의 원칙에만 고집하고 있는 時任謙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같은 발작적 행동은 그의 감정의 不調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바꿔 말하면, 이성과 감정이 불일치할 때,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 謙作의 행동원리임을 알 수 있다.

즉, 그의 어머니의 행위는 謙作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추상화된 이미지여서 거기에 어느정도 굴복하여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그의 아내가 한 행위는 무서운 현실이어서 어떻게 하든 그 사실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謙作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정도의 고민거리였던 것이다.

謙作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는 마음과 취해야 될 방법은 무슨 일이든지 취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방법이 아닌가 하는 안이한 타협을 배제하려는 두 자아 속에서 갈등을 계속한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謙作은 병적으로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고, 아내에 대해 심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서 謙作의 고통을 확대시켜 보여주기 위해 아내에 대한 내용 - 直子の 심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쓰여있지 않다.

謙作도 괴로웠지만, 아내 直子 역시 여러가지 아픔을 겪는다. 첫 아이의 죽음, 사촌인 要的 강제로 인한 「過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격으로 달리는 기차에 오를려고도 했으며, 謙作에게 떠밀리어 플랫폼에 떨어져 뒹굴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直子は 확실히 謙作의 어머니의 不幸을 되풀이하고 있다. 謙作은 直子の 過失에 대해 괴로워하지만, 罪로선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그것은 「罪」가 아니며 어머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過失」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直子和 要的 過失 뒤에 사정을 알게 된 謙作의 고통만이 묘사되어 있을 뿐, 분명히 상처받고 괴로워했을 直子の 심정은 「暗夜行路」에는 언급되

어 있지 않다.

謙作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아주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며, 자신의 정신적인 안정과 그리고 새로운 자아를 찾기 위해 大山行을 결심한다.

#### 4. 갈등의 극복

##### -- 自然과의 조화, 自我意識의 발전

오랫동안의 인간관계에 지친 주인공 謙作은 도롱뇽이나 잠자리와 같은 소동물의 관찰, 그리고 넓고 큰 自然과의 접촉을 통하여 서구적인 인간 對 자연의 대립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 자체를 융합시키는 大自然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의 안정은 인간과 사회를 벗어난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謙作의 이러한 심정을 현대사회의 예를 들어 비추어 보면, “原色の 優位”라는 현상을 들 수 있겠다. 비생명적인 기계색인 회색의 칙칙한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원색적인 것, 좀 더 감각적인 색채를 원하는 현상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아프리카 自然의 생명적인 색채로 충만된 원색의 문화가 곧 비생명적인 기계사회에 대한 보상으로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 현상에도 여러가지 비평이 있을 수 있겠으나, 주어진 사회풍토를 벗어나 자연적인 것을 원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일종의 自然 친화·순응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自然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自然順應의 경지에 달했을 때 자신의 自我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된 謙作은 인간까지도 내포한 大自然의 의지와 인간의 야망을 생각하게 되었다. 人智를 믿는 인간은 언젠가 그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과 自然에 동화된 자신은 인류가 지구와 더불어 멸망하는 일

이 있다해도 즐겁게 감수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해 自然과 共生同死할 수 있는 회열을 느낀다.

謙作은 自然과 내면의 自我를 완전하게 동화시켜 가고 있었던 것이다.

志賀直哉가 전차사고 직후의 죽음과 직면했던 심경을 표현한

…自分はよく怪我の事を考へた。一つ間違へば、今頃は青山の土の下へ仰向けになつて寝てゐる所だつたと思ふ。……それは淋しいが、それ程に自分を恐怖させない考へだつた。何時はさうなる。……然し妙に自分の心は静まつて了つた。自分の心は、何かしら死に對する親しみが起つてゐた。<sup>29)</sup>

라는 글이 있다. 건강한 인간이 엿볼 수 없는 인생의 비밀을 푸는 이와 같은 작가 자신의 체험이 『暗夜行路』 내의 大山에서의 自然觀察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거론된 복잡한 인간관계가 謙作을 불쾌, 초조, 피로 등 여러가지 형태를 띤 어두운 감정으로 끝없이 하강시켜 갈 때 그를 정화시키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 그것은 '自然'이었다.

예를 들어 謙作의 친구인 阪口가 謙作을 모델로 주인공의 친구라는 역할을 부여해 소설을 썼다는 걸 알게 된 謙作은 그들(阪口와 龍岡)과 「茶屋」에 가서 밤을 새우며 유흥을 즐기면서도, 점점 阪口에 대한 불쾌감은 커져가기만 한다.

이때, 피로한 모습으로 귀가하는 謙作을 맞는 어린 염소의 태연한 자태는 한순간에 謙作을 흐트러진 정신으로부터 구해냈던 것이다.

---

29) 前掲書, 志賀直哉, 「城の崎にて」, p.226.

仔山羊は美味そうに其葉を食った。揉むように下顎だけを横に動かして居ると、葉は段段と吸い込まれるように口に入って行った。

一つの葉が唇から隠れると謙作は又次の葉をやった。仔山羊は立った儘の姿勢で口だけを動かし、さも満足らしく食っている。謙作はそれを見て居る内に昨夜來自分から擦抜けて行った氣分を完全に取りもどしたような氣がした。彼が一寸快活な氣分になって

「さあ、お仕舞だ。」と云って、兩の掌に仔山羊の小さい頭を挟んでぐいと胸へ引き寄せた。30)

謙作는 어린 염소의 모습에서 '自然'의 순수함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마음의 정화를 얻어냈다. 염소에 의해 謙作는 유흥 후의 피로, 불쾌, 공허함에서 다시 되돌아와 자기 본래의 자기로서 존립한다는 충실한 감정을 맛볼 수가 있다. 이 장면에 있어서 염소는, 활력에 넘치는 自然의 生命體이고, 그 때문에 염소와 닿은 謙作는 저절로 충실감을 가질 수가 있다.

한가지 더 예를 들면, 집으로 돌아올 때의 일이다.

途中で夜が明けて來た。雨後の美しい曙光が東から段段に湧き上かって來るのを見ると、十年程前の秋、一人旅で日本海を船で通った時、もう薄く雪の降りている劍山の後から非常な美しい曙光の昇るのを見た、其時の事を彼は憶い出した。31)

위의 부분도 염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흥에 완전히 지친 謙作의 눈에

30) 前掲書, 志賀直哉, p.50.

31) 前掲書, 志賀直哉, p.31.

비친 서광의 아름다움이다. 서광이라는 外的自然의 아름다움에 끌린 謙作 내부의 自己와 自然과의 一體化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自然에 접하는 것과 지적인 성찰을 가지고 접하는 경우는 다르다. 풍경이라고 각성된 의식을 가지고 접했을 때에는, 그 自然 체험이 더욱 충실히 되는 수가 있다. 저녁 때, 노을져 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그 노을 속에 젖어 끝없이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해 볼 때 단순한 감각과는 다른 것으로서, 무의식적이기는 하지만, 저녁 하늘에 우뚝 솟는 산과도 견줄만한 청춘의 불타는 듯한 추억이나, 혹은 사라져가는 빛과 함께 몸에 스며드는 인간 세계의 무상함에 대한 우수와 같은 것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서적으로 체험할 때가 있다. 이러한 정서는 단순한 지각과는 달라서, 지성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다. 謙作도 자기가 가는 방향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지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풍경을 보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염소나, 서광의 경우의 自然은 그의 自我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謙作 생애의 커다란 충격이었고, 그의 自我發展의 첫번째 契機인 '출생의 秘密'을 알았을 때 謙作로서는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출생에 관한 일로 괴로워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관계없는 일로서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신이 태어났다는 불쾌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이것은 謙作를 통해 나타나는 志賀直哉의 自己中心的 肯定精神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한단계 더 나아가 謙作는 그 절망에서 자신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自然'을 생각한다. 謙作는 「尾道」로 가는 「神戸」船上에서 自然과 '對立'함으로써

격렬한 自我擴充의 의지를 표방한다.

彼は今、自分が非常に大きなものに包まれている事を感じた。上も下も前も後も左も右も限りない闇だ。其中心に彼はこうして立っている。總ての人は今、家の中に眠っている。自分だけが、一人自然に對し、こうして立っている。總ての人人を代表して。と、そういった誇張された氣分に彼は捕えられた。それにしろ、矢張り何か大きな大きなものの中に自身が吸い込まれて行く感じに打克てなかった。これは必ずしも悪い氣持とは云えなかったが何か頼りない心細さを感じた。彼は自身の存在をもっと確めようとするように殊更下腹に力を入れ、肺臟一杯の呼吸をしていたが、それをゆるめると直ぐ、又大きなものに吸い込まれそうになった。<sup>32)</sup>

謙作는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에 커다란 '自然'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라는 과장된 기분에 빠져 들어 '自然'앞에 버티고 서 있다. 그러나, 「大きな大きなものの中」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어쩔 수가 없었으나 짐짓 아랫배에 힘을 주어 가슴깊이 호흡을 하며 저항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謙作가 그나마 '自然'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自然'과 대항하고 있는 듯한, 과장된 생각에 빠졌던 謙作의 의지는, 「總て」와 대립할 수 있는 위대한 인간이 된 듯한 우쭐한 자신감에 넘친 謙作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런 謙作의 태도에는 어느 정도의 조화 분위기는 느껴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은 될 수 없었다. 自然과의 완전한 調和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謙作를 지배하고 있던 대립

---

32) 前掲書, 志賀直哉, p.50.



적 요소, 말하자면, 아버지, 친구, 성욕 등으로 표현되어 온 대립, 갈등이 自然으로 향한 謙作의 마음을 언제나처럼 뿌리깊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謙作의 사고, 감정 등은, 인간적인 성숙과 함께 서서히 변화되고, 大山에 이르러서는 自然과 自身과의 완전한 一致 - 自然에 녹아가는 芥子粒만큼 작은 존재로서, 內的調和의 完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謙作의 自然과 '對立'하는 것도 결국은 커다란 '自然'을 인정하는 토대위에 가장 '自然'으로 살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에 불과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謙作의 自我는 '自然'에 대립하고 반항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自然'안에서 가장 '自然'으로 살려고 하는 강렬한 자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謙作의 두번째 自我發展의 契機인 '아내의 不貞'이 일어났을 때, 謙作은 시간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도록 놓아두려고 한다. 이는 형의 편지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을 때와 같은 반응이다. 어머니의 過失과 아내의 過失이라는 두 개의 큰 위기에 처해, 마음의 상처 회복을 「時間」의 경과에 의한 自然治療에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극적인 운명을 초인적 의지인 힘에 의해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운명 속에 자신을 따르게 해 간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긍정의 謙作의 태도는 自然順應에 따라, 自然으로부터 주어지는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이 작가의 낙천적 성질과 겹쳐져, 일본적 자연친화·순응풍토의 기본적인 경향이, 이 작가에게 체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謙作의 감정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時間의 경과에 대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 어머니의 不貞 즉, 자신의 출생과 お榮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尾道」로 향한 것처럼 - 謙作은 大山行을 결심한다.

大山에서 謙作은 조용히 '自然'과의 친밀감을 더하면서 '새로운 世界'의 발견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大山에서의 自然에 대한 謙作의 태도는, 「暗夜行路」全篇을 통해서 표현되는 時任謙作의 기분이 발전한 모습, 즉 內的調和의 完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느날 謙作은 등산을 갔다가 도중에서 뒤떨어져 혼자 남게 되었다. 그런, 그 낙오된 山上에서의 自然이 謙作을 완전한 '自然'과의 調和로 이끈다. 謙作은 날이 새지 않은 大山에서 홀로 되어 「大きな自然」에 도취되어감을 느낀다. 그 「大きな自然」이란 大山에서의 어두운 새벽의 自然이었다. 謙作은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아도 그의 예민한 감수성으로 객관적인 '自然'을 감지하게 된다.

疲れ切ってはいるが、それが不思議な陶酔感となって彼に感ぜられた。 -  
彼は自分の精神も肉體も、今、この大きな自然の中に溶込んで行くのを感じた。その自然というのは芥子粒程に小さい彼を無限の大きさに包んでいる氣體のような眼に感ぜられないものであるが、その中に溶けて行く - それに還元される感じが言葉に表現出来ない程の快きであった。…… 大きな自然に溶込むこの感じは彼にとって必ずしも初めての経験ではないが、この陶酔感は初めての経験であった。これまでの場合では溶込むというよりも、それに吸込まれる感じで、或る快感はあっても、同時にそれに抵抗しようとする意志も自然に起るような性質もあるものだった。しかも抵抗し難い感じから不安をも感ずるのであったが、今のは全くそれとは別だった。彼にはそれに抵抗しようとする氣持は全くなかった。そしてなるがままに溶込んで行く快感だけが何の不安もなく感ぜられるのであった。33)

---

33) 前掲書, 志賀直哉, p.188.

이것은 확실히 「尾の道」 때의 自然經驗과 대비를 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다. 「尾の道」에서의 謙作은 自然에 대해서 대립적 태도를 가지고, 빨려들어 가지 않으려고 배에 힘을 넣고 있었지만, 大山에서의 謙作은 自然과 一體가 되어, 조화적 태도를 깨닫게 된다. 여기에서 느끼는 도취감은 自然順應의 경지이고, 본질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고, 謙作은 완전히 인간계에서 차단되어 自然 그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마치 自然이 기체와 같이 느껴져 自我感情에서 탈피하여 自然이 가지는 위대한 존재감과 근원적인 교감상태에 몰입하여 自然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유구한 自然과의 一體化를 이루었다. 이렇게 謙作의 自我는 永遠으로 통하고 있었다.

靜かな夜で、夜鳥の聲も聞えなかった。そして下には薄い霧がかかり、村の灯も全く見えず、見えるものといえば星と、その下に何か大きな動物の背のような感じのするこの山の姿が薄く仰がれるだけで彼は今、自分が一步、永遠に通ずる路に踏山したというような事を考えていた。彼は少しも死の恐怖を感じなかった。然し、若し死ぬならこのまま死んでも少しも憾むところはないと思った。然し永遠に通ずるとは死ぬ事だという風にも考えていなかった。34)

志賀直哉가 열차사고 직후에 「城の崎にて」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이제 謙作에게는 生과 死의 구별 자체의 의미가 없어졌고, 그의 自我는 自然 속에 완전히 융합하여 永遠으로 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34) 前掲書, 志賀直哉, p.189.

大自然의 품에 안겨서 안도감을 느낌과 동시에, 친근해야 할 죽음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永遠이 죽음과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永遠은 自然의 총체를 뚫는 것이고, 生과 死를 넘는 大自然의 생명리듬에 따르는 調和的 世界이다. 이처럼 自然에 귀의하고, 自然과 調和해서 느끼는 기쁨에는 傳統的 自然 順應思想이 기저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불운한 운명으로 인해 고뇌하는 謙作가 속세에서 벗어나 自然이라는 큰 세계의 존재를 발견하고, 마침내 自然의 순리를 그의 내부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버리고 오직 自然에 順應하여 안식과 평화를 발견하는 이러한 심경은 불륜을 범한 아내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謙作의 안정된 조화정신은 동양적인 체관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 내부세계의 융화로서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화정신은 인생의 모든 대립·상극·갈등·고뇌를 초월하여, 자신과 주위의 모든 것을 융합시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충만하고 自然과의 융합에 이른 自我意識을 가지고 直子を 바라보는 謙作의 모습은 평화롭기만 하다. 이제 謙作은 애정의 순수한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直子の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謙作의 모습을 본 直子は 그의 自我가 이미 生과 死를 초월하고 자신의 不貞을 용서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 역시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助かるにしろ、助からぬにしろ、兎に角、自分は此人を離れず、何所までも此人に隨いて行く」라고 決心한다.

直子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한 주인공 謙作은 의지로 自我成長을 이루어 外的自然과 內的自然의 조화, 나아가서 부부라는 인간과 인간간의 새 조화를 이루는데 성공을 했다. 결국 謙作은 수많은 갈등을 거치며 자신의 의지로 극

---

복하려고 노력하고 自然과 융합하려고 노력한 끝에 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自我成長을 이루어냈다고 말할 수 있다.



### Ⅲ. 결 론

志賀直哉의 문학은 전반기에 그의 특수한 가정환경과 그 때 시대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内村鑑三의 사상 등으로 인해 自己中心的인 기분인 흥분, 초조, 방황, 갈등 등의 감정이 나타나는 대립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

그 대립적인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테마는 작가지망의 아들과 그를 반대하는 아버지 사이의 서로 다른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對立이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의 불만을 표출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다. 이런 아버지와 對立은 志賀直哉의 청년기에 있어 가장 큰 인생과제였고, 그의 작품 속에서도 여러가지 형태로 등장할 하게 된다.

지금까지 本考에서 논한 「暗夜行路」도 父子相廻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志賀直哉는 자기의 생애를 통하여, 자기내면의 진실에 의해 판단한 감정에만 따라서 행동하고, 그 감정과 행동의 변화과정을 작품에 남긴 것이다. 강한 근대적 자아의 소유자인 志賀直哉는 자아를 억압하는 다양한 조건과 싸우고, 대립하고, 그것이 그대로 작품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暗夜行路」에 志賀直哉의 분신으로 나타난 것이 주인공 謙作다. 「暗夜行路」에서 祖父의 아들이라는 虛構만 제외하고 謙作가 느끼는 감정, 갈등, 방황 등은 모두 志賀直哉가 실제로 체험한 것들이다.

하지만 「暗夜行路」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다. 「和解」「或る男、其姉の死」를 통해 아버지와 對立적 감정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는 작가에게 있어서 「暗夜行路」의 집필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즉, 「暗夜行路」는 작가 자신의 내부에 남아있던 의혹 - 아버지와 對立

感情의 완전한 해소를 방해하는 내면적 요소를 배출하려는 작가정신의 표현이고, 보다 완성된 調和의 세계에 도달하려는 작가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런 작가의 조화로움을 향해나가려는 의지는 謙作家 갈등, 방황 등을 통해 번뇌하고 고민하면서 점차 安定의 세계, 平穩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그리게 된다. 謙作家 이렇게 自我를 成長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暗夜行路』 내에서의 '自然'이다. 여기서의 自然은 '完成'과 '調和'를 대표하는 것이다. 작품 초반부터 결말까지 상승과 하강을 계속하던 謙作家의 감정을 순화시켜 주었던 것도 동물을 통해서든, 경관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를 띄든 그것은 '自然'이었다. 어머니의 過失과 直子の 過失이라는 가장 큰 갈등도 그의 내부에 침투해 들어온 '自然'에의 감화로 전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는 自然과 一體化를 이룬 세계를 志賀直哉는 理想郷으로 추구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서구적인 자아와 인본주의적 가치관에서 人生無常의 경험을 통해 自我成熟의 경지에 이르는 주인공 謙作家는 志賀直哉의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謙作家의 自我成熟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나 사회와의 적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나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조용한 '自然'과의 완전한 교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志賀直哉는 여러가지 '自然'을 민감하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그것들을 그의 내부에 완전히 흡수해 적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그의 文學世界를 그리고 있다.

『暗夜行路』는 대립적 요소가 갈등의 단계를 거쳐, 和解, 調和의 경지에 도달해 가는 작품이다. 『暗夜行路』의 완성된 조화의 세계는 『暗夜行路』의 마지막에 묘사되어 있는 自然과의 內的調和로서 집약할 수 있다. 긴 방황과 괴로움 속에, 대립, 갈등, 화해, 조화의 상태를 반복하면서 결국 大自然 속에 자신의 존재를 재인식하고, 自我의 成熟을 이끌어내는 時任謙作家는, 자유로운

自然人으로서 순화된 精神世界를 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謙作은 작가의 분신이다. 謙作은 충분히 갈등하고 고민하여 결국 자아성장을 이루어냈고, 이는 志賀直哉 자신이 문학을 통해서 지향해왔던 自己完成의 모습이었음을 더듬어 볼 수 있었다.

志賀直哉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고, 또한 지금까지도 『暗夜行路』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연구되어 온 것은 『暗夜行路』가 志賀直哉의 전인생을 하나로 집약시킨 작품, 즉, 그의 文學特性을 完全히 살려낸 결정체임을 本考 연구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 參 考 文 獻

### 1. 東洋文獻

- (텍스트) 志賀直哉, 「暗夜行路」, 「志賀直哉集」, 筑摩書房, 1985.
- 志賀直哉, 「城の崎にて」, 「志賀直哉集」, 筑摩書房, 1985.
- , 「暗夜行路」, 「日本の文學 21」, 中央公論社, 昭和41.
- , 「續創作餘談」, 「志賀直哉集」, 筑摩書房, 1974.
- 志賀直哉全集第七卷, 「全集完了」, 岩波書店, 1979.
- 志賀直哉全集第八卷, 「稻村雜談」, 岩波書店, 1979.
- 西田正好, 「日本美の系譜」, 創元社, 1979.
- 久松潛一, 「日本文學史總論」, 至文堂, 1977.
- 中村光夫, 「志賀直哉論」, 日本圖書センター, 1992.
- 下澤勝井, 「志賀直哉における生活と文學」, 「志賀直哉Ⅱ」所收, 有精堂, 1978.
- 今野宏, 「志賀直哉の調和的精神」,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所收, 有精堂, 1970.
- 平野嫌, 「暗夜行路發表年譜」, 大正文學研究會編「志賀直哉研究」所收, 河出書房.
- 安岡章太郎, 「『暗夜行路』その背景」, 文藝讀本所收, 河出書房新社, 1985.
- , 「志賀直哉私論」, 講談社, 1983.
- 佐藤直助・平田耿二, 「新版 世界人名辭典-日本編」, 東京堂出版, 1973.
- 麻生磯次 外, 「日本文學概論」, 이영구 譯, 교학연구사, 1993.
- 今道友信 外, 「日本人의 美意識」, 백기수 譯, 교학연구사, 1993.
- 윤석산 외, 「문학의 이해」, 태학사, 1994.

홍문표, 「현대문학개론」, 형설출판사, 1981.

송면, 「소설미학」, 문학과지성사, 1985.

정종, 「철학과 문학의 심포지엄」, 고려원, 1992.

## 2. 論文

崔錫才(1989), “志賀直哉の前期作品に關する一考察 - 心理追求を中心に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崔錫才(1990), “志賀直哉의 전기작품에 나타난 심리추구에 관하여”, 일어일문학연구 제17집.

申恩珠(1990), “志賀直哉文學研究 - 「暗夜行路」를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 청구논문.

李彩英(1990), “暗夜行路의 女性觀과 運命觀”, 계명대학교 대학원.

崔光錫(1990), “志賀直哉文學의 考察 - 對立과 調和精神을 中心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姜權順(1983), “「志賀直哉」의 「暗夜行路」研究”, 서울건대 대학원.

鄭英子(1988), “「暗夜行路の世界」 - 志賀直哉に於ける調和性について”, 상명여대 대학원.

## 3. 西洋文獻

알베르 까뮈, 「시지프의 신화」, 이가림 譯, (1996), 문예출판사.

---

<Summary>

**A study on 「Angyakoro」 of Siganaoya**  
**- Laying stress on the growth of Ego and the motive**

**Ko, In Hyea**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Tae-Kuk**

Among Japanese writers, Siganaoya was one of the most prolific. He published about 200 works. The style of his works are very personal and private. This means that his works are a reflection of his own life and experiences. They tell the story of his own personal growth.

Naoya's major life dilemma centers on the antagonism between him and his father. As a result of this hostility he suffered greatly when he was young.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October, 1997.

Tokito-Kensaku, the hero in 「Angyakoro」 is a reflection of the young Naoya. As a child he lived with his grandparents and from his grandfather he acquired his sense of values. This caused complications between him and his father.

Kensaku, the hero in 「Angyakoro」 is a mirror image of the author. In his childhood he moves to his grandfather's home. He was not welcome in the neighborhood and this was one reason that he became a writer.

Society treats him coldly and he reacts by treating society with equal disdain. As a result he begins to search for his mother in the hope of experiencing his mother's love. Through this search he learns the secret of his birth and the reason for society's coldness toward him. This is the beginning of his own personal journey into self discovery. He then meets Naoko who gives him the love that he craves and he is comforted. But like his mother Naoko is unfaithful and he is driven to despair again.

Kensaku, leaves for the Ooyama hoping to find peace of mind. It is here, when he is alone with nature, that he feels connected to the universe.

Through this exploration in his book Naoya was able to make peace with his father and is forgiven like Kensaku.

He was unable to publish 「Tokito-Kensaku」, the first draft of 「Angyakoro」 because the conflict with his father was still continuing.

The publication of 「Angyakoro」 signifies that the conflict has been resolved. 「Angyakoro」 is Naoya's most important work because it includes his entire life.